

<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빌립보서 3:12-14 / 새찬송가 347 (통일 382) 허락하신 새 땅에

1. 믿음의 조상들의 시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시간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수많은 기적들은 그들의 믿음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성이 미래를 향할 때 일어났습니다(창 12:1),(히11:20-26).

믿음의 시간성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지금 즐기자는 것으로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벧전2:11). 그러나 믿음의 시간성이 미래라면 참고 인내하며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딤후6:11,12).

2. 나의 시간성은 미래지향적일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성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나를 잡아끌고 가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빌3:14). 우리도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고 이를 얻기 위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여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주는 상을 받고자 현재를 절제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상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이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입니다(고전9:24,25). 게다가 세상이 주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상을 방해할 뿐입니다(눅6:26).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나를 끌고 감으로써 목표가 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바울 자신을 잡고 끌고 가서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빌3:12).

3.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로 향한 시간성입니다

미래로 향한 시간성을 아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질병과 고난의 늪에 빠트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의 미래의 시간성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도 미래의 그 어떤 희망도 스스로 거부하도록 우울증을 가져와 우리의 미래의 시간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며 이는 우리 마음에 불타는 ‘소명’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원래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창1:28).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방한 마귀는 사람을 죄 짓게 하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소명은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인 것입니다(마28:19,20)! 이 사명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실천>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문제나 질병 혹은 당장 눈앞의 것을 해결하는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